

[동정] 관세청장,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

- 케이(K)-뷰티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인 품목분류는 가이드북 제작 통해 지원하기로

□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30일(수)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(주)서울화장품*을 방문하여 화장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,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* (주)서울화장품(대표 한광석, 한정수) : '2003년 설립, 화장품 제조, '24년 수출 722만불

○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호관세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과,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.

□ 한정수 (주)서울화장품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호관세를 확정(8.1.) 이후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.

○ 또한, 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하여 품목분류*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
* 세계관세기구(WCO, World Customs Organization)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,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

□ 이명구 청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,

○ 케이(K)-뷰티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주연 (042-481-32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미 (042-481-3211)